

## 근대

### 1. 국권수호투쟁기의 동학농민, 의병운동

한국은 19세기 말 근대사회에 이르러 제국주의帝國主義 침략에 대응하는 자주독립自主獨立과 근대화近代化의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었다. 이는 한국의 전통적 조선사회 해체의 귀결이었으나 열강列強의 외압이라는 세계사적 조건과 결부된 것이었다. 여기에서 한국은 자주와 외압, 개화와 보수라는 갈등 속에서 자주독립과 근대화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결국 1910년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植民地로 전락하고 말았다. 따라서 서구 열강의 침입과 개항·통상 요구가 표면화되는 1860년대부터 국권을 상실한 1910년까지는 국권수호투쟁기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위정척사衛正斥邪와 이를 계승한 의병義兵, 개화開化 운동이 일어난 것이지만 이 중에서도 일제日帝에 의한 식민지화植民地化 과정에서 민족자존의 강인한 항전과 함께 전근대적 사회체제에 대한 개혁을 전개한 운동체계는 동학농민운동東學農民運動이었다.

영광은 다른 지역보다 빠른 1880년대 말부터 동학이 포교布教된 지역의 하나이자 1894년에 전개된 반중세反中世의 근대개혁과 일제 구축驅逐을 주도한 동학농민운동의 주 무대였다. 동학은 철종 때(1850~1863)에 경주의 몰락 양반인 최제우崔濟愚(1824~1864)가 외세 침탈에 따른 민족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보국안민輔(保)國安民’과 불우 계층을 구제한다는 ‘광제창생廣濟蒼生’의 이념을 제창하면서 창시되었다. 당시 영광의 동학교도들은 1893년에 교조신원敎祖伸冤과 부패 관료의 척결, ‘척왜양류倭洋’의 사회변혁운동인 보은취회報恩聚會는 물론 전봉준全琫準(1855~1895)이 주도했던 전라도 금구현의 원평취회院坪聚會에도 참여하였다. 이들 집회는 조정의 탄압을 받아 해산되었으나 1894년 전봉준의 고부농민봉기에 이어 ‘무장기포茂長起包’로 불리는 1차 동학농민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당시 영광은 이미 1차 운동 직전에 민중항쟁民衆抗爭이 전개될 정도로 관료들과 법성포 조창漕倉의 수탈이 심화된 지역의 하나였다.

따라서 영광은 가장 주도적이며 대규모로 참여한 반중세적 개혁의 ‘동학농민운동의 주무대’가 되었다. 이들 농민군이 포고문布告文을 공포하고 법성포의 이항吏鄕들에게 통문을 보내 민폐民弊의 시정을 촉구하는 폐정개혁弊政改革을 가장 먼저 촉구한 것도 영광지역이었다. 특히 부안 황도현전투에서 승리한 후 4월 12일에 영광 관아를 점령하고, 14일에는 법성포로 진격하여 일본 상인들을 구축한 것은 일제에 대한 반침략·반제국주의의 의의를 지닌 것이었다. 이러한 주도적 활동은 영광의 동학조직이 1880년 전후부터 확고하게 뿌리내려 전근대적 사회체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시대의식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영광의 인근지역이자 1차 운동의 진원지인 무장 등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다수의 지도자가 배출되었기 때문이었다.

이후 농민군은 장성 황룡강전투를 승리로 이끈 후 전주화약을 체결하고 자진 해산하여 호남 각 군에 집강소執綱所를 설치하여 근대화를 향한 폐정개혁을 단행하였다. 이에 영광의 동학교도들은 진도 일대까지 진출하여 폐정개혁활동을 벌이다가 체포되어 희생될 정도로 전라도 서남부지역에서 커다란 활약을 하였다. 그러나 일제는 동학군이 해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일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친일개화파정권을 수립하게 된다. 여기에서 동학농민운동군은 다시 항일의 2차 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우수한 화력을 앞세운 일제에게 공주 우금치에서 패배하고, 각지에서 동학군이 체포 처형되기에 이르렀다. 영광에서는 오하영吳河泳과 오시영吳時泳이 8천명의 농민군을 이끌고 일제를 격퇴하기 위해 싸웠다. 이렇게 영광은 ‘동학의 대소굴’로 지칭될 정도로 농민군의 활동이 활발하여 그 피해가 다른 지역보다 매우 컸다. 당시 일제는 수많은 농민군을 영광 신하리 가축시장(우시장)부근에 무더기로 화장하여 그 시체조차 찾아가지 못하게 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처럼 영광을 비롯한 외세 배척의 2차 운동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 그러나 동학농민운동은 이후 이

들 농민군이 의병·독립군 전쟁의 주류를 형성하면서 민족자존의 독립운동을 즐기치게 전개했던 그 강인한 추진력을 얻는데 그 연원을 이룬 것이었다. 따라서 앞으로 이에 관한 자료가 산실散失된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함께 영광의 농민군 지도자와 전투 등의 연구가 더욱 진척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동학농민운동은 개화파와 개화정책을 반대하면서도 전근대적 사회체제를 개혁하려는 근대상을 지녔던 것이므로 영광에서의 폐정개혁 실상을 치밀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도 찾아진다. 특히 동학농민운동 실패 이후 이들 농민군의 동향과 함께 전라도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원불교圓佛敎를 비롯한 신종교新宗教 운동과의 관련성을 밝히는 일도 향후의 과제로 제시된다.

그리고 영광은 호남의병운동의 중심무대였다. 의병운동은 국권수호투쟁기에 가장 먼저 일어난 사상체계인 위정척사운동衛正斥邪運動에 연원한다. 이 운동은 성리학性理學을 신봉하는 유생들이 열강의 외압과 침략을 막고, 국권을 수호하려는 ‘존왕양이尊王攘夷’의 이념에서 전개되었다. 이들은 대원군大院君의 쇄국정책鎖國政策을 뒷받침하면서 1860년대 서구 열강과의 통상 요구와 1870년대의 일제의 강압에 따른 개항을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했으며, 1880년대에는 외세 배격에 머무르지 않고 정부가 추진하는 일련의 개화정책을 비판 반대하였다. 이러한 이념과 운동은 광주·전남이 선구를 이룬다. 1866년 병인양요丙寅洋擾가 일어나자 장성의 노사蘆沙 기정진奇正鎭(1798~1879)은 척화斥和의 논리를 제창하면서 열강의 침입을 막기 위해 의병을 계획하였다. 물론 위정척사운동은 전통적 양반사회兩班社會의 체제를 정비하는 보수적 ‘내수內修’의 한계를 지니지만 서양과 일제의 침략 의도를 간파한 민족과 국가 보위운동으로, 의병운동으로 계승되는 ‘외양外攘’이라는 주체 보전의 애국적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 바로 여기에서 기정진의 손자이자 문하인 송사松沙 기우만奇宇萬 등이 일제에 대하여 국권을 수호하는 의병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이러한 의병운동은 독립군전쟁과 함께 절대독립絶對獨立을 달성하기 위해 무력으로 일제를 추방해야 한다는 항일독립운동사의 핵심에 속한다. 이 한국독립전쟁사는 1895년 의병운동에서 시작되어 무장독립전쟁에 의해 1945년 독립을 쟁취할 때까지 반세기에 걸쳐 전개된 것이었다. 특히 의병운동은 1894년 갑오개혁甲午改革 이후 국권이 상실된 1910년대 초반 이후 독립군전쟁으로 전환되기까지 4기에 걸쳐 즐기치게 전개되었다.

제1기 ‘전기 의병(1894~1896)’은 1894년 경복궁을 무력으로 점령한 일제를 축출하기 위해 일어난 갑오의병甲午義兵과 1895년에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단발령斷髮令을 전국적으로 실시하자 각지에서 전개된 을미의병乙未義兵을 지칭한다. 물론 갑오의병 당시 전라도는 일제 구축驅逐을 위한 제2차 동학농민운동을 전개한 시기로 특징 지워진다. 그러다가 단발령을 계기로 1896년 기우만과 향리鄕吏들이 각각 장성과 나주에서 주도한 을미의병이 전개되었다. 영광에서는 기우만의 문인인 후은後隱 김용구金容球가 늙은 모친의 병환 때문에 직접 참여하지 못했으나 서로 후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을미의병은 일제의 침략정책에 항거하기 위해 전개한 것으로 그 공격 목표는 주로 일본군과 거류민, 단발령을 강제로 시행한 관료들이었다. 그러나 을미의병은 유생층들이 주도한 것으로 고종의 권고에 따라 점차 해산한 한계를 보였으나 이후에 전개되는 의병운동의 전초를 이루게 되었다.

제2기 ‘중기 의병(1904~1907. 7)’은 1905년 ‘을사늑약乙巳勒約’을 전후로 일어나 1906년에 전국적으로 확대된 국권회복의 항쟁이었다. 전라도의 경우 1906년 기우만이 ‘척왜기의斥倭起義’의 통문을 발송하여 일제에게 체포되고, 면암勉庵 최익현崔益鉉이 태인 무성서원武城書院에서 봉기한 후 동족인 진위대鎭衛隊와 싸울 수 없다고 자진 해산한 근왕적勤王的 한계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호남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나게 되었으며, 영광에서도 김용구 등을 중심으로 구체화되고 있었다. 그는 성재省齋 기삼연奇參衍과 서로 왕래하면서 봉기계획을 수립하고, 영광의 지사志士들과 조직한 일심계一心契를 구심점으로 의병을 모집하여 일본군 수비대와 접전하였다. 그가 자신의 의병운동을 기록한 『의소일기義所日記』는 당시 항일구국운동의 실상을 전해주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제3기 ‘후기 의병(1907. 8~1910.10)’은 1907년 헤이그밀사건에 따른 고종의 강제퇴위에 격분하여 일어난 후 군대해산이 강행되자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해산 군인들이 의병운동에 직접 가담함에 따라 부대조직과 전투력 강화의 변화를 가져와 한 단계 발전된 전국 규모의 대중적 투쟁으로 끌어올

리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의병의 대중적 기반이 강화되면서 종래 유생들의 근왕적 한계를 벗어나 민중·민족적인 국권방위전쟁國權防衛戰爭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따라서 호남에서는 1907년에 기삼연을 맹주로 한 ‘호남창의회맹소湖南倡義會盟所’가 결성되어 다른 지역보다 가장 강한 대중적 기반을 토대로 치열한 전투를 전개하였다. 이 호남의병진은 영광 유생들과의 적극적인 연대 속에서 결성된 것으로 영광의 도통령都統領 김용구등이 지도부의 중심축을 구성하였다. 특히 이들은 매우 강한 내부의 결속과 조직력을 가지고 각지에서 유격전술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또한 김용구부대는 호남 의병진과의 연합작전은 물론 독립적으로 일제와 교전하였다. 이 과정에서 외아들 김기봉金起鳳이 순국한 후 그 자신도 일본군 토벌대와 교전하던 중에 총상을 입었으나 이후 영광 출신의 여러 의병장들의 주도로 줄기찬 항쟁이 지속되었다.

이렇게 항일의병전쟁의 최고 절정을 이룬 호남의병이 장기적인 항전을 전개하자 일제는 1909년 9월부터 2개월간 ‘남한대토벌작전’을 전개하여 살육·방화 등 야만적 만행을 저질러 전라도일대를 초토화시켰다. 이 작전은 전남 전체를 완전 포위하여 그물질·빚질하는 ‘교반적攪拌的’ 방법에 따라 수행되었으며, 각 마을 단위로 의병을 색출함으로써 대부분의 의병장들이 체포되거나 전사하였다. 1907년 8월부터 1909년까지 기록상일본군에 의해 희생된 의병은 16,700여명이며, 부상자는 36,770여명으로 나타나지만 그 이상이었으며 당시 영광의 수많은 의병들도 희생되었다. 이러한 일제의 ‘대토벌’은 한국 병합을 앞당기려는 목적 이외에도 비옥한 호남평야를 집중적으로 수탈하려는 의도에서 자행된 작전으로 1910년 곧바로 한일합병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4기 ‘전환기 의병(1910. 11~1915)’을 거쳐 이후 의병전쟁은 간도연해주로 이동하여 해외의 독립군전쟁으로 확대 전환되어 전개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호남은 가장 격렬하게 의병전쟁을 전개하여 일제의 지배를 근저에서 위협한 지역으로 가장 희생을 많이 당한 곳이었다. 또한 영광의 의병운동은 김용구의 활동에서 짐작되는 것처럼 동학농민운동과 마찬가지로 호남의 주축을 이루었다. 따라서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함께 의병들의 이념과 다른 지역의 관계, 1910년 이후의 동향 등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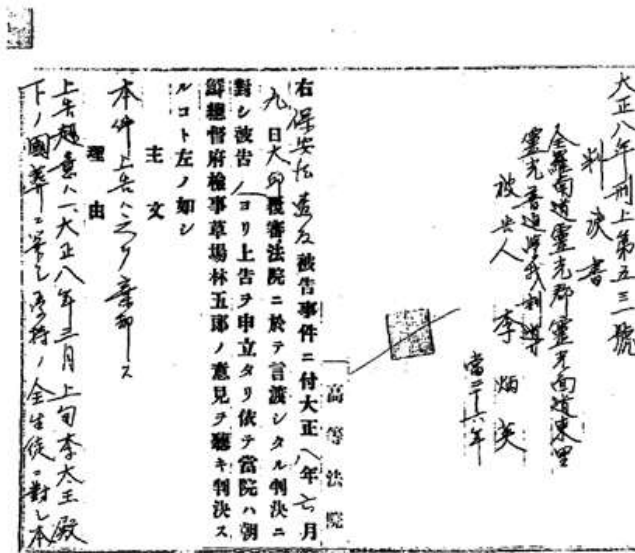
새롭게 추구되어야 할 과제로 제시된다. 아직도 영광의 의향義鄉 성격은 다른 분야·지역과는 달리 재조명되거나 부각되지 않은 사실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영광은 1173년에 영광김씨 문관 김보당金甫當이 반무인정권反武人政權의 의로운 항쟁을 전개하다가 화를 당했으며, 임진왜란부터 병자호란에 이르기까지 국난이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주도적으로 줄기차게 의병활동을 전개하였다. 바로 영광이 동학농민운동의 주무대였고, 전국에서 가장 치열하게 전개했던 호남의병진의 의병전쟁에 있어서도 영광인들이 주축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영광사림의 대의大義와 전통을 계승한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 2. 3.1운동

일제는 1907년에 군대를 해산 시킨 후 1910년 8월 22일에 한국을 강제로 병합하여 총독부總督府를 설치하고, 헌병경찰에 의거한 무단통치武斷統治를 시행하였다. 특히 일제는 1912년 토지조사령土地調査令을 발표하여 국토를 약탈하고, 학교령學校令 등을 통해 한국인의 독립정신을 없애고 식민지배에 순응하는 식민지 노예교육을 강요하였다. 이러한 일제의 침략에 대항하여 국권수호를 위한 적극적인 투쟁으로 의병전쟁이 1910년대 초까지 전개되었으며, 국민의 의식을 계발하여 애국심을 기르고 국가의 힘을 축적하여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신민회新民會 등의 단체가 결성되어 애국계몽운동愛國啓蒙運動을 전개하였다. 물론 이 운동의 식산흥업殖産興業은 제국주의의 논리라는 사상적 한계를 동시에 지녔던 것이지만 민족의 생존을 위한 실천적 민족투쟁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특히 해외에서는 만주의 간도지방에 신흥무관학교新興武官學校가 설립되고, 시베리아의 연해주에서도 대한광복군정부를 비롯한 단체들이 설립되어 일제의 국권침탈에 항거하면서 무장 독립투쟁의 토대를 마련해 가고 있었다.

따라서 1919년 3·1운동은 바로 1876년 개항開港 이래 민족운동을 계승하여 일제의 강제병합과 무단

통치에 항거하여 독립을 쟁취하려고 일어난 전민족 차원의 독립운동이었다. 여기에 3·1운동은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의 전후戰後 처리를 위해 개최된 파리강화회의에서 제안된 미국 윌슨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民族自決主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물론 당시 손병희孫秉熙를 비롯한 민족지도자들은 민족자결에 입각한 한국독립의 실현이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이를 실제 실천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적극 활용하고자 하였다. 특히 3·1운동은 한국의 독립을 요구하는 일본에서의 2·8독립선언과 함께 고종의 장례날인 3월 3일로 계획된 것처럼 일제의 고종독살설의 광범한 유포 속에서 대대적인 민족운동이 전개되는 계기가 되었다.



◇ 이병영 판결문(대구복심법원 1919.8.28.)

영광의 3·1운동은 3월 10일의 광주에 이어 광주·전남권에서 두 번째로 14일에 전개되었다. 이렇게 다른 지역에 비교하여 곧바로 3·1운동이 전개된 사실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 매우 강인한 의향義鄕 정신이 영광의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일찍부터 위계후·조철현 등과 같이 신교육을 받아 민족의식을 자각한 인물들의 주도 속에서 적극 전개될 수 있었다고 인식된다. 이들은 3·1운동을 통해 새로운 항일운동 주도층으로 대두하여 1920년대 이후 영광의 사회운동을 주도하였다. 특히 영광에 있어 14·15일의 만세운동은 최초의 점화단계이자 단시간에 최고조에 달했던 지역적 성격을 지닌다. 15일에는 영광경찰서까지 진입할 정도로 독립쟁취와 수감자 석방의 의지가 높았기 때문이었다. 이는 영광의 높은 독립의지가 배경을 이루는 가운데 서울에서 귀향한 조철현·류일과 국장國葬에 참여한 노준魯駿 일행, 영광에서 독자적으로 거사계획을 가진 영광보통학교교사 이병영李炳英 등과 학생들 그리고 정인영鄭仁英, 정헌모 등이 처음부터 합세하여 실행했기 때문이었다.

이들의 주도 속에서 이를 동안 거의 1,000여명 이상의 대규모 군민들이 대대적으로 합세하고, 시위대 앞위에서 만세운동을 지도할 정도로 운동의 전 과정을 매우 치밀하게 실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더구나 일제가 만세시위가 광기와 같았다고 지적하고, 지도층들이 '남들보다 한층 더 즐거운 기분으로 크게' 외쳤다는 사실을 통해 영광인의 독립쟁취 의지가 매우 강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영광의 3·1운동은 오랜 염원이었던 민족독립을 쟁취하고, 식민통치의 무력탄압장치인 영광경찰서에 쇄도 진입함으로써 처음부터 강도 높은 항거이자 독립 제창의 뜻 깊은 의미를 지닌다. 이에 놀란 일제는 군대까지 동원하여 1차 운동을 탄압했던 것이며, 이후 영광 전 지역의 동향을 철저히 감시하고 차단하였다. 그러나 영광에 있어서 만세운동은 15일 이후 민족독립의 의지를 환기시키면서 영광 전 지역에 확산되었다. 이는 일제의 철저한 감시 속에서도 1차 시위를 이은 영광읍과 법성포의 대대적인 만세시위가 계획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四) 慶尙北道  
 連捕ニ解散セシム  
 生徒百二十名ハ校庭ニ於テ獨立萬歳ヲ高唱  
 シ附逃ヲ練リ歩キタルヲ以テ首謀者四名ヲ  
 連捕ニ解散セシム  
 (三) 全羅南道  
 靈光郡靈光 十五日五午靈光邑内ニ於テ  
 普通學校卒業生ニ中心トスル約一千名ノ群  
 衆ハ運動ヲ開始シタルヲ以テ首謀者七名ヲ  
 連捕ニ解散セシムナリ

(六) 全羅南道  
 靈光郡靈光 十四日午後四時公立普通學  
 校生徒百二十名ハ各自韓國旗ヲ携ヘ示威  
 運動ヲ開始セシヲ以テ警察署ニ於テ首謀者  
 鮮人耶蘇敎牧師及學生二名ヲ逮捕シ解散セ  
 シノタルカ再擧ノ虞アルヲ以テ在郷軍人及  
 消防組ノ應援ヲ求メ警察戒中

◇ 조선독립운동에 관한건  
 『조선소요사건관계서류』1919.3.16

◇ 조선독립운동에 관한건  
 『조선소요사건관계서류』1919.3.15

물론 3월 27일 영광보통학교 졸업생들이 주축을 이룬 만세운동은 시위행진 단계에서 좌절되었다. 그러나 이 운동이 1차의 연장선상에서 계획 진행되었고, 일련의 애국가 빠라 살포와 태극기 제작 등이 실행되었던 것이므로 이를 ‘미발사건未發事件’이 아닌 만세운동으로 적극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법성포보통학교 학생 박명서와 교사 나계형의 주도로 4월 1일에 만세시위를 계획했으나 30일에 국기를 투입 배포하는 과정에서 일제에게 탐지되어 대부분 검거되어 무산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영광 전지역의 만세시위는 당시 전국의 3·1운동이 4월 중순까지 지속된 것이었으나 일제의 철저한 탄압 앞에서 그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자료의 한계가 있지만 영광군 전역에 걸쳐 ‘산발적 시위’가 일어났으며, 전주에서 운동을 전개한 고형진高衡鎭과 남궁현南宮炫(1901~1940), 당시 임실에서 이를 주도한 은선암의 주지 양태환梁太煥(1885~?) 등의 외 지활동이 전개되었다. 특히 3·1운동은 전국적으로 2백만 명 이상이 참가하고, 일제의 공식 집계상 7,500여명이 피살되었는데, 영광에서는 참여자 7,600여명과 사망자 6명으로 나타나지만 실상 그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국내의 독립운동에 한계를 느끼고 노준·위계후·고경진 등은 해외망명을 통한 무장투쟁을 절감하여 대동단에 가담하게 되며, 국내에서는 새로운 사상조류인 사회주의의 수용에 기대를 걸고 각종 단체를 결성하여 각 분야의 사회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이러한 영광의 3·1운동은 한국사 전체에서 이해되는 것이지만 민족자결의 원칙이 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 식민지에만 적용되는 세계정세 속에서 외교적 청원주의 방식으로 해결하고, 3·1운동의 대중적 확산단계에서 적극적인 지도력이 행사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3·1운동은 민족독립운동의 고양과 독립쟁취의 토대를 마련한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 위정척사운동衛正斥邪運動은 그 자체 한국의 자주독립을 위한 주체보전운동이었으나 농민층을 포괄하는 신분평등과 근대 지향성이 약하였다. 그러나 이 운동은 의병운동과 독립전쟁으로 계승되어 성리학을 고수하는 유생층의 전근대적 의식이 극복되면서 대중적인 민족투쟁으로 발전하였다. 개화사상도 민중 결여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중적인 독립협회에 이어 애국계몽운동으로 발전되었다.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했던 민중들도 의병·독립전쟁에 합류하여 항일민족운동의 기본세력이 되었다. 이

는 각 계층의 이해利害와 입장에 따라 그 운동형태를 달리하던 것이 이제 반중세·반침략 의식을 토대로 국권회복과 독립쟁취의 공동목표아래 항일민족세력을 형성하고, 근대 민족주의로 합일되어간 것을 의미한다. 바로 3·1운동은 그 같은 기반 위에서 전근대적 의식을 일소하고, 자주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전민족적 차원의 독립운동이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도 만세시위운동이 전개되었으며, 이후 간도와 연해주에서 각 단위부대가 편성되어 독립군의 국내진공작전國內進攻作戰이 개시되고, 대한민국 상해임시정부上海臨時政府를 수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3·1운동은 전세계에 한국의 독립의지를 보여준 계기가 되어 중국의 5·4운동과 인도의 독립운동을 크게 고무시킨 세계사적 의의를 지닌 것이었다. 특히 영광의 3·1운동 과정에서 영광·법성 보통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의 활동은 주도적이었다. 당시 학생들은 민족운동의 중추적 역할을 자부한 항일운동의 선봉으로 1926년 6·10만세운동에 이어 1929년에는 광주학생운동光州學生運動을 전개하였다. 이 운동은 1930년까지 전국에서 194개교의 5,40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하고 피검자가 1,642명에 이르는 3·1운동 이후 최대의 민족운동으로 발전한 것이었다. 영광출신으로 광주학생운동에 참여하다가 퇴학과 옥고를 치른 교사와 학생들이 있었다.

### 3.사회운동의 성격과 확산

1919년 3·1운동 이후 영광의 사회운동은 전분야에 걸쳐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는 1910년대 민족계열의 애국계몽운동 과정과 1920년대 초에 도입되는 사회주의 이념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한국에서 초창기 개화파들이 구상했던 근대상은 부국강병富國強兵에 있었으며, 이를 위해 신교육의 보급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현재 영광의 사회운동가 중에서 개화·애국계몽사상가들과 연결되는 인물에 대해서는 자세하지 않다. 그러나 영광의 3·1운동을 주도한 인물들이 유봉기의 집에서 『유년필독幼年必讀』을 읽으며 애국심을 고취하였고, 광복을 맞이할 때까지 영광의 사회운동을 주도한 위계후·고경진·정인영 등은 한말 이후 신교육을 받은 인물들이었다.

이미 영광에서는 광흥학교光興學校와 법성보통학교가 설립되어 신교육을 통해 독립의식을 환기시킴으로써 1910년 이후 학생운동의 기반이 되었으며, 3·1운동 이후 사회운동의 주도층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들은 추인·토우회 등을 비롯한 각종 단체를 결성하여 지속적으로 군민을 계몽하고,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 이러한 영광의 사회단체들은 1920년이후 민족·사회주의 계열을 막론하고 실상 1916년에 결성된 영광청년회靈光靑年會가 모체로서 이를 토대로 각 분야의 단체와 활동으로 분화되어 전개된 성격을 지닌다. 이 때문에 영광(연합)청년회의 조직과 활동상은 동아일보가 지적한 것처럼 영광이라는 지역성을 넘어 청년운동의 '호남의 이상향'으로 칭송되었으며, 전국적인 항일구국운동의 선도체로서 자리잡고 있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영광에서도 3·1운동 이후 일제의 무단정치武斷政治보다 더욱 교묘해진 문화정치에 맞서 가장 먼저 민족계열의 애국계몽적 실력양성운동實力養成運動이 전개되었다.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을 이룬 것은 민족교육운동이었다. 일제는 교육시설을 확장하기도 했으나 이는 식민지교육을 실시하고, 한국으로 이주해 오는 일본인을 위한 것에 지나지 않아 한국인에 대한 차별·노예교육은 더욱 심화되기 마련이었다.

더구나 교육을 통해 민중을 계몽하고, 민족정신을 배양하여 장차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한국인을 위한 한국인의 고등교육기관의 필요가 절실하여 1923년에 영광민립중학 설립운동으로 나타났으나 일제에 의해 무산되었다. 따라서 영광에서의 교육운동도 3·1운동이후 교육을 통한 민족역량의 배양과 인재 양성을 위해 차별교육의 시정 철폐를 전제로 학제 연장의 고등교육 실현·학교 확충의 정원 확대·월사금투쟁을 통한 수업료 감하운동을 넘어 학교설립운동으로 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일제는 한국인 학교를 억제하여 일본인 학교와는 달리 한국인의 입학은 입시지옥이었으며, 1932년의 경우 영광보통학교 전교생의 70% 이상인 300여명이 월사금을 내지 못하여 퇴학당하는 형편에 있었다. 이에 1928년부터 위계후 등은 학부형회를 결성하고, 청년동맹과 연합으로 월사금투쟁을 전개하면서 학교설립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운동은 일제의 식민정책과 1930년 이후 민족말살정책에 따라 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또한 1922년 영광중학기성회를 발기하여 학생 100여명을 모집하는

단계로까지 발전하고, 전국적으로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영광의 선구가 전남교육계의 규범을’ 만드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당시 기성회에서 군민들이 받듯게까지 열광한 ‘영광 초유의 장관’을 연출할 정도로 학교설립은 나라 잃고 노예교육을 복무해야만 했던 영광과 한국인의 숙원사업이자 국권회복을 위한 토대였다. 그러나 일제의 방해 탄압 속에서 부호층의 외면과 간부들의 이탈로 끝내 실현되지 못하고 폐교되고 말았다. 물론 이후 박정환의 정명학교正明學校가 설립되었으나 역시 일제의 감시와 압박으로 폐교되었고, 허관의 농업보습학교農業補習學校 설립도 한국인의 본격적인 인재양성에는 일정한 거리가 있었다. 이처럼 영광에서도 3·1운동 이후 입학지망자가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 신문화 건설과 실력양성을 위한 학교설립운동이 전개된 것이었으나 실패로 끝나고, 1930년대를 전후해서는 우민愚民·노예 교육을 뛰어넘은 민족말살의 황국신민화교육이 강행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영광의 교육운동은 한말 이후 신교육이 시작되면서 일련의 신지식층이 형성되고, 이들과 학생들의 주도로 3·1운동이 전개된 후 각 분야에 걸친 영광의 사회운동이 일어나는 기반이 되었다.

바로 학생들은 독립항쟁기에 민족운동의 중추역할을 자임한 항일운동의 선봉으로 영광의 3·1운동도 이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후 학생들은 1926년 6·10만세운동과 1929년 광주학생운동을 전개하여 민족독립운동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현재3·1운동과 영광 출신으로 외지에서 광주학생운동에 참여한 몇몇 인물을 제외하고는 영광의 학생운동은 자세하지 않아 앞으로의 자료발굴과 연구가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영광의 사회운동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 분야에서 전개된 것이었다. 당시 영광청년회는 노동·농민운동 외에 1910년대부터 체육활동을 전개한 후 문예회·저축계貯蓄契 조직·위생과 농촌계발 교육·방역사업·금주와 금연·토목사업을 통한 빈민구제·한글 보급과 야학·음악과 연극 등 다양한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는 1923년 조선물산장려회의 자급자족·국산품 애용·소비절약·금주·금연 운동과 맥락을 같이한다.

이는 일제 상업자본의 황포에 대한 배척으로 나타나 민족산업의 육성과 민족자본의 형성을 통한 경제자립운동으로 이와 직결된 영광의 사회운동도 더욱 자세하게 밝혀질 필요가 있다. 특히 한글로 간행된 동아·조선일보도 언론을 통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영광보통학교 학생으로 3·1운동을 주도한 후 평생 항일운동에 섰던 조철현曹喆鉉과 정현모가 동아일보 영광지국의 기자였던 사실로 미루어 영광의 사회운동에 있어서 언론활동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1927년 신간회 창립 이후에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최세문의 한글과 유상은의 조선사 강좌 운동 등은 주시경의 조선어연구회(1921)·조선어학회(1931)와 민족주의 역사학의 확립과 관련된 민족운동이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1920년대는 한국에 새로운 사상조류인 사회주의가 보급된 시기이다. 대중운동의 고양 속에서 민족주의의 실력양성론이 한계를 나타내는 가운데 러시아혁명의 성공은 사회주의이념이 급격하게 수용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이러한 사회주의운동은 처음 해외의 연해주에서 비롯된다. 1917년에 수립된 레닌의 소비에트정권은 ‘약소민족을 강대국가에 병합하는 것은 타국의 토지 약탈’로 규정하고, 식민지 민족의 자결권과 쟁기를 촉구하였다. 따라서 당시 한국의 민족 지도자들은 3·1운동이 실패로 끝나고 민족자결원칙의 기대가 좌절된 상황에서 그들의 사상이 민족·사회주의자이든지 아시아 피압박민족의 광복을 열렬하게 제창한 소비에트정권에 대해 상당히 고무될 수밖에 없었다.

이로써 해외에서 상해·이르쿠츠크파가 형성되어 한국 공산주의운동의 2대 원류가 되지만 국내에는 동경유학생들을 통해 마르크스주의가 보급 확산되어 나아갔다. 특히 1920년에 서울에서 조선청년연합회의 결성과 함께 최초의 청년단체인 ‘서울청년회’가 조직되었으며, 1923년에는 신사상연구회가 창립되어 화요회火曜會로 개칭되어 공산주의운동을 주도하였다. 그 결과 1925년 제1차 공산당이 결성되었으며, 1926년 제3차 공산당을 주도한 일월회一月會가 온건 민족계열과 함께 좌우익합작의 민족협동전선인 신간회와 근우회를 발족시키게 된다. 그러나 한국공산당은 제5차 공산당을 재건하지 못하고, 일제의 철저한 탄압으로 결국 지하운동화한 끝에 광복을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한국의 사회·공산주의 운동은 '일제 타도와 조선의 완전 독립'을 목표로 한 민족독립운동의 한 조류였다. 이들은 처음 민족·계급 모순의 해결을 내걸고 노동·농민운동 등 조직적인 항일운동을 지도하였다. 그러나 이를 토대로 한 독립투쟁은 무산자의 해방을 우선하는 입장에 있었고, 계급적으로 민족계열인 유산자계층을 타도해야 하는 기본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신간회 이후 지속적인 민족연합전선을 강구하지 못하는 한계를 남겼다. 이후 이들의 민족과 계급의 불일치는 급진적 좌경화를 초래하면서 노동자와 농민의 참여를 소극적으로 만든 하나의 요인이 되었으며, 1930년대 일제의 철저한 탄압에 직면하여 조직화될 수 없었다. 이는 한국독립운동사에 있어서 민족·사회주의 계열로 분화되어 항일독립투쟁이 고립 분산적으로 전개된 것에 그치지 않고 1945년 광복 이후 민족국가 건설과 남북분단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영광의 사회운동도 처음 민족적 운동을 전개하다가 1920년 이후 다수의 모든 단체가 사회주의 영향을 받게 된다. 당시 대부분의 지식인층은 극좌적 성향과는 달리 사회주의이념을 식민지의 민족·계급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이념으로 수용하였으며, 청년회간부로서 사회주의 단체를 결성하여 지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1921년에 조직된 노동우애회는 사회주의 영향 속에서 종래 민족의 독립이라는 정치투쟁에서 벗어나 최초로 계급적 경제투쟁에 속하는 노농운동을 전개한 단체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들은 계보상 대부분 서울청년회 신파에 속했으며, 조운·조용남 등을 중심으로 영광의 사회운동을 주도하면서 사상단체인 토우회 등을 조직하고 그 일부는 전남조선공산당(ML)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물론 좌우의 인물들이 포괄된 영광체육단의 구성으로 볼 때 영광에 있어서 사회·공산주의 운동가들의 분파와 파쟁, 민족계열과의 대립상은 적어도 1945년 건국준비위원회 때까지는 그리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영광의 사회주의 운동사는 앞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구명究明되어야 할 연구과제로 부각된다. 이들의 영향 속에서 1920년대 노동·농민 운동이 이루어졌고, 조운 등 외에도 위계후와 함께 사회운동을 주도한 남궁현南宮炫도 1930년대 고려공산당 회원이자 전남지역의 사회주의 운동을 전개한 인물이었다.

이들은 1927년 이후 제3·4차 조선공산당의 조직과 개편 속에서 전남도지부를 중심으로 청년·노동, 농민운동 등 대중운동을 적극 전개하였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개별 연구와 함께 한국사회주의운동사와 관련하여 이들이 조직 결성한 단체와 활동상을 밝히는 일은 영광의 온전한 근대사를 재구성하는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이들에 대한 이해는 광복 이후 남북분단이라는 이념과 대립에서가 아니라 식민지 한국인의 현실과 직결된다. 이들은 사회주의사상을 독립쟁취의 민족과 반중세적인 계급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이념으로 인식하였으며, 바로 이들의 투쟁 역시민족계열과 동일한 독립투쟁으로서 이들의 계급적 경제투쟁 역시 일제의 지주계급에 대한 항거로 수용되었기 때문이다.

## 4. 농민·노동운동

영광의 사회운동은 이념적으로 민족·사회주의 계열로 구분되고, 영광(연합)청년회를 기반으로 각 단체가 분화 발전된 성격을 지닌다. 결국 1930년대 말에는 일제가 조작한 영광의 최대 사건인 영광체육단 사건이 일어나 각 단체의 독립지사들이 탄압받게 된다. 또한 영광·법성포보통학교 등의 교사와 학생층은 항일운동의 선봉이었으며, 전군민이 일치 호응하여 일어난 것은 3·1운동과 영광중학교설립운동이었다.

특히 일제강점기 영광인의 분노 속에서 일어난 것은 한국인의 노예적 처지가 단적으로 드러난 영광수리조합·굴농장 사건이었다. 따라서 당시 농민·노동자들은 한국인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가장 혹독하게 식민 피해를 직접 받은 계층이었다.

일제강점기는 민중항쟁의 형태에서 벗어나 농민의 이익을 추구하는 근대이념과 조직을 가진 농민운동이 활발히 전개된 시기였다. 이는 일제의 토지조사사업과 산미증식계획에 따른 쌀 수탈과 일본인들의 농지 점유에 따른 것이었다. 당시 농민들은 소작농의 증대와 소작권 박탈의 위협 속에서 잉여생산물



剩餘生産物은 물론 필요 생산물까지도 수탈당하는 전근대적 고율지대高率地代인 현물 소작료를 납부해야만 하였다. 또한 소작농은 농업시설과 자재를 미리 강제적으로 선대先貸받음으로써 수확기에 원금과 함께 일종의 고리대 성격을 지닌 이자를 납부하는 형편에 있었다. 그 결과 농민층의 몰락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소작권의 이동 반대와 소작료 감하減下를 위한 소작쟁의小作爭議가 전개된다. 이는 1920년 15건에서 1931년 667건, 1935년 25,834건에 58,019명이 참여한 것처럼 일제의 수탈이 진전될수록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갔다. 더구나 전남은 식민지적 지주제가 가장 많이 분포한 지역에 해당하였으므로 암태도의 소작쟁의 등과 같이 강고한 투쟁을 전개하고, 전국적인 확산에 있어서 선구적인 지역에 속하였다.

특히 소작농은 실상 임금노동자와 같았으므로 노동운동과 연계하여 조선노동자농민총동맹의 영향을 받으면서 농민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농민운동은 산미증식계획에 따라 몰락해간 자작농층을 흡수하여 1920년대말 수리조합반대운동과 농민조합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농민운동을 통합해간 신간회가 해체된 후인 1930년대 초에는 조선공산당 재건운동과 연결되면서 적색농민조합운동赤色農民組合運動으로 전개되어 민족주의 성격이 퇴색하게 되었다. 더구나 농민운동은 총동원법(1931)과 소작료통제령(1939)과 같은 일제의 철저한 탄압 속에서 잠적하게 되고 그 대신 민족주의 성격을 지닌 산발적인 농민항쟁이 전개되는 형태로 약화되어 갔다. 이러한 농민운동과 소작쟁의는 지주에 대한 경제투쟁인 동시에 식민지 수탈체제에 대한 민족적 독립투쟁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농민운동은 사회지식인층에 지도 운영되었으나 계급과 민족독립의 논리를 완전히 일치시키지 못했으며, 극좌적 공산주의운동이 신간회를 해체시키면서 급진적 농민운동을 초래하여 장기적으로 운동 주체가 약화되는 한계를 보이고 말았다.

특히 일제강점기 노동자는 군수공업정책에 따라 1930년대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저임금과 12~16시간의 장시간 노동에 종사하였다. 이러한 노동자의 현실은 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노동조건 개선을 내걸고 파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쟁의勞働爭議로 대변되었다. 물론 노동쟁의는 소작쟁의와 마찬가지로 경제투쟁이었으나 일제의 식민 수탈에 항거하는 민족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후 노동운동은 1930년대 공산당 재건운동과 연결되어 비합법적인 혁명적 성격을 띠어 갔으나 일제의 철저한 탄압 앞에서 잠적할 수밖에 없었다.

영광은 항일 농민·노동 운동이 거세게 일어난 지역 중의 하나였으며, 처음부터 서로가 결합하여 전개되었다. 1920~30년대 영광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교하여 일본인들이 많이 진출하여 간척지 농장을 확대하고, 1924년에는 수리조합을 개설하였다. 그 결과 식민지 지주제가 심화되고, 소작료와 수리조합비 부담의 증가는 농민층을 몰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간척지 개간에 따라 수많은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장시간의 노예노동에 종사하는 형편에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성 전개된 영광의 노농운동은 주로 사회주의의 영향 속에서 이루어진 성격을 지닌다. 1920년대 초반부터 영광의 각 면과 동·리를 단위로 농민·노동단이 조직되고, 이를 기반으로 1922년 10월 5일에 영광노농대회가 개최되었다. 특히 영광노농회는 경종경고비京鍾警高秘 제11994호의 1에 따르면, 1925년 이후까지 조선노동총동맹의 전남지부에 속한 단체로서 사회주의계열 서울청년회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또한 백수면에서는 1922년 11월에 전체 동리 농민단을 단위로 백수농민조합이 조직되어 당시 영광의 노농운동에서 지도적 위치를 확보할 정도로 가장 단결력과 투쟁력이 강하였다. 특히 1927년 토우회土友會가 창립되었는데, 영광의 청년·노동운동을 주도한 조운·조용남 등이 결성한 노농단체로서 실생활의 이익을 쟁취한다는 경제투쟁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 일부는 서울청년회 신파에 속하는 전남 조선공산당(ML)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이들 단체들은 계급적 경제투쟁을 전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민족주의계열과 함께 독립투쟁을 전개한 민족운동의 한 조류였다.

이러한 노농운동의 전개 속에서 전남의 대표적인 농민운동으로 손꼽히는 1923년 군청시위에 이어 1925년에 영광수리조합사건이 발생한다. 본래 영광수리조합의 설립은 면민대회를 개최하여 촉구할 정도로 불감천 치수治水의 필요성 때문에 추진되었다. 그러나 저수지공사 과정에서 공사 부실과 이전비,

조합의 잡배 고용 등을 비롯한 피해가 드러나게 되었다. 더구나 저수지공사와 조합비 부담에 따른 일부 자작농의 농토 상실 등은 반대운동이 일어난 요인이 되어 1920~30년대 '영광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발전되었다. 따라서 군민들은 백수농민조합을 중심으로 살풍경殺風景을 연출하는 줄기찬 투쟁을 전개하여 조합의 위원에서 문제의 일본인이 사퇴하고, 군수가 전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공표하는 성과를 거두면서 일단락되었다. 이와 함께 1921년에 노동우애회勞動友愛會가 설립되어 '회원의 행복'을 내걸고 본격적인 경제투쟁의 노동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노동운동 속에서 1922년에는 영광출신의 노동자들이 다수 일본의 난공사장에서 혹독하게 착취당하고, 비참하게 피살된 석대굴살사건瀉大屈殺事件의 진상 규명과 이를 규탄하는 시민대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같은 해에 영산면 굴농장掘農場的 횡포에 대항하는 노동운동도 전개되었다. 당시 영광 전 지역에서 일본인들이 농장을 설립하기 위해 대규모 간척사업을 전개하여 저임금과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예노동, 상습적인 폭행으로 한국인 노동자를 혹사하고 있었다.

이에 노동우애회는 현장조사단을 파견하여 노동자들의 권익 옹호를 결의하고, 폭행자 처벌과 학대 방지, 상당한 임금 지불을 내걸고 조직적 지도력을 발휘한 투쟁을 전개하여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후 영광에서도 농민의 노동자전략이 축진되고, 실업失業이 상존하는 현실 속에서 일제에게 수탈과 착취를 당했음은 물론이다. 당시 동아일보는 영광의 노동자 현실에 대해 '불쌍한 동무들아! 그들의 이름은 조선인이라. 살 곳이 어디며, 살리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식민지의 참상을 참담하게 표현하고 있다.

## 5. 신간회 활동과 체육단사건

1920년대는 전국에서 사회운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새로운 독립운동이념으로 사회주의 사상이 도입된 시기였다. 그러나 1920년대 말에는 독립운동노선이 민족·사회주의 이념으로 분화되는데 따른 좌우익의 대립을 해소하고 보다 조직적이고 일원적인 추진이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 결과 중국에서 일어난 민족유일당民族唯一黨의 결성 동향 속에서 사회주의계열의 극좌와 민족주의계열의 타협론을 극복하여 절대독립을 추구하기 위한 좌우익의 민족협동전선이 모색되고 있었다. 당시 비타협적 민족계열은 이광수 등의 타협적 자치운동을 반대하고, 노동·농민·학생 운동을 반드시 계급운동의 범주에서 인식하지 않으면서 사회주의자들의 무산자 계급독재의 운동을 인정하였다. 또한 사회주의계열도 1926년 정우회선언을 통해 민족독립보다도 계급독립을 급무로 하자는 극단적 좌경화에서 벗어나 종래의 계급적 경제투쟁에서 벗어나 독립쟁취의 정치투쟁으로 전환하고, 민족계열과의 협동전선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1927년에 '정치경제적 각성 촉구', '기회주의 부인' 등을 강령으로 채택한 신간회新幹會가 창립되기에 이르렀다. 이 신간회는 이상재를 회장으로 추대하고, 전국 141개 지부와 4만 회원, 방계조직으로 여성단체인 근우회權友會를 갖추는 방대한 조직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신간회의 활동은 일제 식민통치의 본질을 꿰뚫고, 궁극적인 독립쟁취를 위한 방향으로 전개되어 각 분야에 걸쳐 일제 착취기관의 철폐·일본 이민 반대·한민족 억압의 법령 철폐·한국인 본위의 교육과 산업 실시·한국어의 교수·과학과 사상 연구의 자유 등을 제창하게 된다. 특히 신간회는 학생운동은 물론 경작권 확립·최고 소작료 공정·소작인의 노예적 부역 폐지 등을 강령으로 내걸어 농민운동을 통합하고 지도하였다. 또한 노동자의 단결·파업권과 단체계약권의 확립, 8시간 노동제 등의 노동입법을 추진하면서 노동운동을 지원 지도하였다.

● 靈光靑年會 今年二月中有  
志靑年들의發起로靑年會가組織  
되後靑年部와會員들의당과는물론  
벗삼고苦心經營한結果로모양  
로나가며現수會員이數百參拾名  
이리으리등안출발하던靑年界에  
차뜻한몸이왔다會에서는會長의  
品性의陶冶向上을圖하며通俗的  
修養을圖하며體力增進을務하며  
風紀改善에努力하기爲하여圖書  
部를두어圖書及新聞雜誌를誼  
하며隨時로學藝展覽會를開하고  
運動部를두어運動會遠足會等  
旅行早起會登山會等을開하기로  
하고講演部를두어學術宗教風紀  
에對한討論과講演會를開하기로  
한다會의모든經費는勿論會員의  
負擔으로저우充當하나會館과運  
動場을建設하기爲하여靑年部以下  
會員은한분다하나아직아무計劃  
이되지못함은眞로遺憾이다이會  
에對하여周圍의見解는엇더한고  
?生命의고呼吸의는時代에對한  
靈光의先聲?父老의太半은이會  
에對하여何等理解의補助가없을  
뿐아니라도로先聲의體面을墜  
落하지하나라관德할수이러라

◇ 영광청년회 『동아일보』1920.4.19

따라서 1920년대 말부터 전개되는 영광의 사회운동은 ‘신간회의 결성과 활동’이라는 독립운동노선상의 흐름과 직결되어 이해된다. 1927년 영광청년회의 해체에 따른 영광청년동맹의 결성은 바로 신간회 창립에 따른 새로운 독립운동의 모색 결과였다. 특히 남궁현은 신간회 활동으로 2년간 옥고를 치루었고, 최세문의 한글과 유상은의 조선사 강좌 등은 편진옥·정현모·김은환을 비롯한 영광의 신간회 회원들이 추진한 활동이었으며, 당시 신간회 활동은 학생·노동·농민 운동 등의 분야에 걸친 사회운동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보다 구체적인 영광의 신간회 활동상은 자세하지 않다. 또한 당시 신간회는 근우회와 함께 여성 교육 및 직업에 대한 모든 제한 철폐 등의 활동을 전개했으나 아직 영광의 여성운동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밝혀져 있지 않아 앞으로의 연구가 요구된다.

이러한 신간회운동은 민족독립운동사에 있어서 좌우 대립을 해소하고 좌우합작을 통해 독립을 쟁취하려는 연합전선운동의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신간회는 좌우합작의 독립운동과 통일민족국가 수립운동의 시발점을 이룬 것으로 적극 해석된다. 그러나 신간회는 1931년 일제의 간부 체포와 탄압으로 해산되어 끝나고 말았다. 더구나 신간회의 해체에는 내부에서 합법적 자치운동을 주장하는 일부 민족계열과 극좌적 사회주의화의 대두에 따른 민족협동전선의 분열에도 그 요인이 있었다. 이는 한국의 독립운동이 하나로 결집하지 못하고 다시 좌우익으로 분화 전개되고, 독립 이후 분단의 상황과 연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영광청년회에 뿌리를 둔 청년동맹은 조선청년총동맹의 해소와 중앙청년동맹으로의 재집결이라는 상황에 처해 있었으며, 중앙의 좌우익 대립이 노정되는 정세가 영광에 그대로 미치기 마련이었다.

결국 영광의 신간회 활동은 일제가 먼저 지방지부를 탄압하여 중앙 본부를 해체시키려는 총독부 경무국의 신간회 박멸공작에 의해 1929년 영광청년동맹대회 전후에 걸친 일제의 철저한 감시와 억압 속에서 점차 와해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영광의 신간회는 다른 지역에 비교하여 독립운동노선상의 좌우익 분열과 대립이 심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물론 신간회 이후 영광의 단체 결성과 이념적 운동형태는 앞으로 연구해야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30년대 신명철 등이 거거된 전남농협의회사건全南勞農協議會事件과 영광체육단과 갑술구락부·법성체육회·독서회·군서친목계 등의 조직과 활동은 신간회 해체이후 영광에서 지속적인 사회운동이 전개되었음을 시사한다. 특히 좌우익을 포괄하는 인물들이 영광체육단사건에 연루된 사실은 적어도 영광에 있어서 독립운동노선상의 이념과 대립이 다른 지역보다 극심하지 않았음을 뜻하는 것이었다.

